

[온누리 35주년 온라인선교간담회]

코로나-19 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_2 일차: 교회개혁과 제자양육

몽골 에쁘니교회 개혁 사례를 통한 코로나 시대 교회개혁과 제자양육

발제자: 이철희/ TIM

I. 들어가는 말

코로나 상황은 향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도 장기화와 New normal 의 상황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선교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선교 전략에도 이전에 당연시 하며 행했던 사역들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상황의 발생에 대해서 두란해외선교회(이하 TIM)에서는 파송선교지 전체 선교사들을 Strategic Team(ST, 전략사역팀)과 Regional Coordinator(RC)들이 함께 비대면 화상미팅을 진행하였고, 이후 전체 선교사들에게 Corona-19 로 인한 현장의 변화와 Post Corona 의 현장선교전략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TIM 선교사들의 설문 조사에 기초해 작성한 “코로나 19 이후 선교환경변화와 대응방향” 자료집을 보면 사역의 핵심 예상 변화를 6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과 디지털 사역의 일상화이다. 둘째,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 중심 사역. 셋째, 현지 사역자 중심 사역으로 방향 전환과 이양 촉진. 넷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협력 선교 확대 및 융합선교 강화. 다섯째, 긴급구호, 개발, 회복사역의 필요성 증대. 여섯째, 난민, 이주민 선교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 구상이다.

본 발제에서는 에쁘니 교회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제자양육과 교회개혁을 진행할 계획인지 나누고자 한다.

II. 몽골 TIM 사역

몽골 현대 선교 역사는 올해로 30 주년을 맞이 했으며 TIM 몽골 선교는 24 번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온누리교회와 TIM 선교사가 진행해 온 사역들은 교육(대학교, 초, 중, 고등 학교), 의료, NGO, 교회 사역 등 다양하다. 온누리교회와 TIM 선교사가 몽골 선교에 기여한 공헌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역의 분야 뿐 아니라 전문성에 있어서도 탁월한 수준이었다고 자부한다.

현재 몽골 TIM 선교사는 11 유닛의 한국인선교사와 5 유닛의 몽골현지인 선교사로 총 16 유닛이 3 개의 전략사역팀으로 사역하고 있다. 각 ST 의 사역과 선교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역 소개

1) 바나바 사역팀

바나바 사역팀은 한영훈(SC, Strategic Coordinator), 오수정/ 양판석, 천수경/ 천데, 바찌/ 몽흐보잉 선교사가 동역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핵심 사역인 일대일과 큐티,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중심으로 제자 양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인 주도형" 형태의 교회개척 방식으로 '주영광교회'를 개척하여 개척 초기부터 현재까지 현지인 중심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 선교사는 필요시 조연과 MPC(Mission Project Coordinator)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다. 선교사와 현지인의 협력을 통해 몽골국립의과 대학에서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제자양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지인 천데 선교사는 몽골 성서 공회에서 성경 번역 사역과 국제 로잔 사역을 섬기고 있다. 초기 선교사 주도적 모임이었던 "목회자 포럼" 사역도 현재는 현지인 목회자들 스스로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다.

2) 아가페 사역팀

아가페 사역팀에는 박관태(SC), 정수경/ 김주의, 김혜현/ 유정태, 젠드마 선교사가 동역하고 있다. 아가페 기독 병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동진료, 어린이 사역, 방과후 사역, 교회 사역, 몽골 목회자 가정 케어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총체적 선교를 시도하고 있다.

많은 사역 중에 특별히 최근에 시작한 이동진료 사역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복음이 취약한 시골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함으로써 교회개척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팀을 통해 세워져 가고 있는 '큰사랑 교회'는 현지인 선교사 젠드마 목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유비드림교회'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형태로 현재는 선교사 주도의 개척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전도와 목양도 진행을 하고 있다.

3) 선교 몽골과 브리야트선교 사역팀(MaB, Mission Mongolia and Buriyat Missiain)

이 팀에는 강한대(SC), 김은정/ 이철희, 원은복/ 이지훈, 배윤주/ 김지연/ 장현수, 임현정/ 손진성, 황선영/ 수혜, 통가/ 아치트,투메/ 보야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

MaB ST 의 사역으로는 브리야트족, 교회개척, 성경번역, 신학교, BEE, NGO 등의 사역이 있다. 이 팀은 주로 수도와 멀리 떨어진 잡황, 도르놏드, 다르항 같은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교회 사역과 더불어 도르놏드에서는 브리야트족 사역, 다르항에서는

다르항 신학교와 BEE(신학연장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에서는 NGO 사역과 성경번역 사역을 하고 있다.

2. 사역의 특징

몽골 TIM 사역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꼽을 수 있다.

1) 전방개척선교

수도인 울란바타르와 더불어 도르놋드, 잡황, 다르항 등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전무하거나 소수였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2) 미전도종족 선교.

은누리교회가 1996 년에 몽골 브리야트족을 입양함으로써 미전도종족 사역이 시작되었다. 1997 년 강한대, 김은정 선교사 가정을 브리야트족의 거주 지역인 초이발산으로 파송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현장 사역이 시작되었다. 강한대, 김은정 선교사는 문화센터를 개설하여 복음의 불모지인 브리야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의 열매로 도르놋드에 브리야트족을 위한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이교자/ 김경찬, 이지혜 선교사가 차례로 브리야트 미전도종족 사역을 이어 갔으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브리야트 마을인 차강 어워, 바양동, 다시발바르에 또 다른 교회들이 개척되었다. 이교자 선교사가 개척 정신으로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김경찬, 이지혜 선교사는 제자양육과 지도자양육 사역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다.

그 결과로 현재는 네 교회 모두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 졌으며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장현수, 임현정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번역팀을 구성하여 브리야트 성경번역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조만간에 브리야트어 성경책이 출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몽골 내의 브리야트족 선교 활동에 집중하였다면 지역을 넓혀 이제는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내의 브리야트족 선교 활동을 위해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준비하고 있다.

3) 제자양육과 교회개척에 초점을 맞춘 사역

몽골 Tim 선교사들은 NGO, 비지니스, 학교, 병원, 구제, 교도소, 중독회복, 아버지학교, 찬양 등등 많고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시도하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의 방향성과 목표가 명확하였다. 그것은 곧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가 양육되며 교회가 개척 되는 것이었다.

4) 현지인 중심의 빠른 전환

대부분의 사역이 선교사 주도적으로 개척되고 시작되었으나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지인에게 이양이 이뤄졌다. TIM 선교사들이 개척하여 동역하고 있는 15 개의 교회 중에 개척 단계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제외한 14 개의 모든 교회가 현지인에게 이양이 되어 현지인이 담임하고 있다.

Ⅲ. 에프니 교회개척 및 현황

1. 교회개척 배경

1) 교회 개척자 소개

이철희, 원은복 선교사가 에프니 교회를 설립할 당시 이전에 3 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또한 10 년의 선교 기간을 통해 현지 문화와 언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상태였다. 이것은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큰 장점으로 작용 되었다. “선교사는 교회 개척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 라는 확신 또한 교회 개척에 큰 도움이 되었다.

2) 설립연도와 지역

주일 첫 공 예배를 드린 시기는 2007 년 5 월이다. 당시 몽골의 복음화율은 1.5% 정도였으며 전체 그리스도인의 수는 4-5 만 명 정도였다. 교회 개척 사역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였다. 교회를 개척한 곳은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북쪽으로 3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의 인구 10 만명 정도의 몽골의 제 2 도시인 “다르항”으로 북쪽으로 1 시간을 달리면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의 국경과 접한 교통과 행정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비해 적은 수의 선교사가 사역 중이었고, 또한 장기적으로 다르항을 거점으로 지역 복음화와 러시아 브리야트공화국 선교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2. 선교사주도에서 현지인 주도로 전환 과정

1) 선교사 주도형 개척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리형으로 선교사 자신이 직접 양육한 사역자가 아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결된 현지인 사역자를 활용해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건축형으로 외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현지인 교회를 건축해 주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현지인 주도형으로 현지인 사역자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이다. 네 번째는 선교사 주도형으로 선교사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이다.

에프니 교회는 선교사 주도형으로 개척되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선교사가 새신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할 경우 처음에는 더디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고 선교사의 목회 철학(온누리 목회철학)을 공유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 소그룹 중심 교회

에프니교회는 초기부터 소그룹 모임을 강조했다. 성도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우는 것을 제자양육의 목표로 삼았다.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가 필수적이었다. 전도를 통해 얻은 결신자들이 자신들의 소그룹 멤버가 되기 때문이다. 소그룹에서는 큐티 나눔과 기도 간증 나눔, 전도 나눔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말씀, 기도, 전도를 생활화하는 제자로 성장하였다. 한 소그룹의 규모는 적게는 3 명에서 많게는 30 명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10 명 정도가 한 소그룹의 일원이었다. 소그룹은 50 개 정도였고 소그룹 참여율은 2/3 정도였다. 소그룹 리더가 실제적인 목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교사는 현지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목양을 감당하기에는 태생적으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목양을 현지인 소그룹 리더들이 감당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선교사는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3) 이양

에프니교회는 선교사가 개척한 지 4 년 후에 현지인에게 이양되었다. 이양을 받은 사역자는 에프니 교회를 통해 처음 신앙 생활을 한 지 2 년 반 정도였던 “보야” 형제로 당시 20 세의 대학교 2 학년였다. 2011 년에 교회를 이양 받은 후 현재까지 목회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고, 2019 년 TP(Turning Point) 훈련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와 TIM 의 선교사로 사역 중이다.

랄프 윈터 박사가 제시한 4p 단계에 비추어 봤을 때 에프니교회의 경우는 개척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참여자 단계 혹은 떠남(depart) 단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뤄 졌다고 볼 수 있다.

3. 현지인 주도 사역 현황

1) 재생산

에프니교회는 초기부터 재생산을 목표로 삼았다. 개척 2 년 후 다르항에서 1 시간 정도 떨어진 “샤마르” 지역에 교회 개척팀을 보내기 시작했고 다시 2 년 후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4 년 후 다르항에 2 교회, 울란바타르에 1 교회를 분립 개척하였다. 6 년 후 “보야” 사역자가 에프니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5 개 교회를 추가로

개척하면서, 에쁘니교회를 통해서 총 10 개 교회가 개척되었다. 현재는 없어지거나 통합된 교회도 있어 6 개의 교회가 남아 있다.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는 형태로 교회 개척이 이뤄졌고 교회 내에 가장 큰 소그룹이 통째로 분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현재에도 전도, 교회개척팀이 네 개의 시골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교회개척을 목표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2) 자전, 자치, 자립

맥가브란은 “선교의 목표는 토착화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라고 했다. 토착교회란 현지인에 의해 자전, 자치, 자립하는 교회를 말한다. 에쁘니교회는 개척부터 “현지인 사역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 “교회를 선교사가 지어 주지 않는다”는 두 가지 원칙을 기초한 토착교회를 목표로 했다. 에쁘니 교회와 분리된 교회 모두 현재 현지인들 스스로 자전, 자치, 자립하고 있다.

그러나 에쁘니 교회와 분리된 교회들 모두 담임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에쁘니교회는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모은 재정으로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로 건축비의 40% 정도를 저축해 놓고 있다.

3) 현지인 사역자

에쁘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보야와 분리된 교회들의 사역자는 ‘미크로교회’의 부르네, ‘샤마르교회’의 바이라, ‘티툼교회’의 토야, ‘마라나타교회’의 바트바야르, ‘신우일스교회’의 아르라이다. 이들은 온누리 교회의 사역과 목회 철학(사도행전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등)을 계승하고 있으며 보야와 아르라는 온누리교회 단기선교사 훈련을 마쳤다.

4) 선교사의 역할

현재 다르항에 거주하면서 에쁘니 교회와 분리된 교회들을 섬기는 이지훈, 배윤주/김지연 선교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리더들의 멘토와 MPC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교사로서 끊임없이 전도, 제자양육, 교회개척 사역에 실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자의 삶의 본을 보여 주고 있다.

IV. 코로나 시대 사역의 변화

코로나 시대에는 제자양육과 교회개척 사역에 있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에쁘니 교회와 TIM 사역이 어떤 변화를 겪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본다.

1.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몽골에서는 이동이 제한되고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다. 예배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 철저히 금지되었다. 여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쁘니 교회 또한 초기에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이 사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사태가 장기화 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Facebook 을 활용하여 주일 예배를 생중계하는 정도였다. 그 후 이 방법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Facebook 의 활용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갔다. Facebook 영상을 활용해서 성경통독과 큐티 나눔을 하고 있고 기타 개인 상담, 일대일 양육, 기도모임 등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를 활용한 사역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전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하고 있다. 주일 예배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성경공부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활용하고 있다. 다르항 신학교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동 제한 명령으로 인해 교수가 직접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핸드폰이나 기타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핸드폰을 활용해서도 큐티 나눔과 기도, 일대일 등 영적인 소통들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SNS 를 활용한 사역은 몽골 선교의 새로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은 수도를 제외하고는 적은 인구가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다. 아직도 몽골인의 20% 정도는 유목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들에게 SNS 를 활용해서 전도와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다행히 최근 몽골의 통신 사정이 좋아지면서 시골 지역에도 인터넷이 보급되거나 데이터 속도도 많이 빨라지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은 대부분 다양한 SNS 활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회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인터넷과 데이터 속도가 느리고 사용 비용도 저렴하지 않아서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온라인으로 인한 집중도 저하, 기술과 장비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 사역의 활용은 불가피해 보인다.

2. 대중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코로나 19 이전에는 대중이 모이는 주일 대예배, 성령 집회, 금요기도집회, 성경공부 등이 교회의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면서 이런 중심 사역들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럼에도 교회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소그룹 DNA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중 모임은 할 수 없었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던 소그룹 순모임은 지속할 수 있었다.

현재는 대중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이전처럼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한 건물에 모여 드리는 주일 대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세 번 정도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소수로 구성된 전도, 교회개척팀은 현재에도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수의 사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전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현재는 "호샤트" "어르헝" "헝거르" "쥬나이" 마을에 전도, 교회개척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대일 양육 혹은 가정 순모임, 가정 어린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의 전염 위험으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교회에는 오기를 꺼려하지만 찾아가는 손님은 환영하는 몽골의 문화 덕분에 가정에서 소수가 하는 이런 사역의 형태는 아주 효과적인 편이다.

3.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를 예견한 건 아니었지만 선교는 "토착화"가 종착역이기 때문에 몽골 TIM 선교사들은 이전부터 현지인 중심 사역으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왔다. 2017년에 현지인이 주도하는 사역을 하기로 결의하는 "몽골 TIM 사역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TIM 선교사가 개척하여 현재까지 함께 동역하고 있는 13개의 교회 중 한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가 현지인들에게 이양이 되어 자전, 자치, 자립을 하고 있다. 다르항신학교 사역도 거의 모두 현지인 교직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현지인에게 이양하지 못한 사역으로는 아가페기독병원, ECC, BEE 사역 등이 있다. 아가페기독병원과 BEE 사역은 시작한지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 개척단계에 있으므로 이양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이다. ECC는 선교사가 거주할 수 있는 비자와 사역의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점차적으로 이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회개척과 와이미션을 비롯한 향후 몽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역들은 처음부터 선교사 주도가 아닌 현지인 주도로 시작하고자 하며 선교사는 멘토와 MPC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4.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몽골 TIM 사역은 개인 중심 사역에서 점차적으로 공동체 중심 사역으로 이동해 왔다. 초기에는 개인 중심 사역을 진행했고 ST(전략적사역팀)가 구성된 이후 팀 사역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타단체와 교회, 교단 등과의 협력 사역도 개인 중심의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ST차원의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각 ST별로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 '한인선교사연합회' '몽골 성서 공회' 등의 단체들과 꾸준히 협력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ST 차원을 넘어 TIM 차원에서의 연합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CC 사역은 이전부터 TIM 차원의 협력 사역으로 진행해 왔고 일대일과 큐티 사역, BEE 사역, 아가페기독병원 이동진료사역 등은 ST 차원을 넘어 TIM 차원의 협력 사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TIM 차원에서 몽골 단체나 교회들과 협력 사역을 진행할 경우 온누리교회의 융합선교를 적용하기에 용이하며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플랫폼의 필요성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몽골에서 거주 허가를 얻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져 왔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몽골에서는 ECC 와 아가페기독병원이 선교사들의 비자와 사역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을 통해 여러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TIM 선교사가 지방에 진출해서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직접적인 전도와 제자양육 등의 선교 활동에 큰 제약이 있어 ECC 의 경우 존속 여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이 무의미하게 된 것 같다. 원하든 원치 않든 플랫폼 구축 사역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V. 결론

전도와 제자양육은 선교의 핵심 사역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통해 “보내든지, 가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로 대표되는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들이 몽골에 많이 세워지길 소망한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사역에 쉼표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 선교를 열어 가라는 주님의 뜻이라 믿는다.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지혜와 개척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한다.